

광주 대학가 5·18 추모 분위기 글썽?

전남대 내 추도공간 쓸쓸...다른 학교들도 외면
진로와 취업 현실 문제에 ‘역사의식’ 실종 우려

“‘오월광주’ 역사에 무감각해 진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추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980년 5월 당시, 항쟁의 한 주역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젊음을 불사한 선배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자 광주지역 대학에도 나름의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또 다양한 기념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날로 치열해지는 취업난의 팍팍한 현실을 반영하듯 대체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으로 쓸쓸함을 더해주고 있다. 16일 오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빛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시작이자 현재는 정문이 사적지 제1호로 지정된 전남대학교. 1980년 5월에는 민주화의

열망으로 학생들이 앞장섰던 전남대에 올해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으나, 그 날의 뜨거웠던 광주 역사를 기리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도서관 본관 앞 분수 건너편 잔디밭에는 신군부 세력의 군사 독재에 반대해 민주항쟁에 맨발로 나섰던 고 박승희 열사의 추모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잔디밭에 햇빛 가림막 아래 박 열사와 전남대 출신 민족 열사들의 영정사진이 단상에 놓여 있는데, 현화로 바쳐진 몇몇 국화꽃만이 지지고 있다. 아직 현화되지 못한 국화 다발이 덩그러니 쌓여 추도하는 발길이 끊겼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 주변으로도 수업을 준비하는 등 제 갈 길을 찾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조선대학교. 반외세·반독재에 투쟁하다가 경찰 검문을 마지막으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고 이철규 열사의 모교지만, 추모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념비만이 공허하게 잔디밭 한 켠에 자리잡았다.

2년 전인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거론으로 재조명 됐던 표정두 열사의 모교인 호남대학교 또한 그를 기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소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지역 대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묵묵 바쳐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그 숭고한 정신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대 재학생 임모(27)씨는 “5·18민주항쟁에 대한 열령들의 희생을 애도하고, 이를 간직하는 것들은 이상적으로는

따라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취업난이라는 개인적 현실 앞에 사회 역사의식이 무감각해 진 것 같아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찬우 5·18 행사위 겸 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1980년 5월27일, 광주를 지키며 전남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한 시민군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고 외쳤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처럼 그 정신을 계승해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치열하게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 들어 많아진 것 같다. 이마저도 먼저 살아온 선배들이 세상을 각박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 뿐이다”면서 “그래도 광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준다면 5월의 민주화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밑 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무철현기자

“미술관투어하고 쇼핑도 즐기세요!”

동구, 중심사 상가지구 활성화 위한 투어·버스킹 추진

을 펼친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다양한 콘셉트의 공연을 선보인다.

18일부터 6월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는 의재로·증심사권역 미술관을 탐방하는 ‘예술투어 무등산로드’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네이버 폼(포스트 큐알코드 참조) 또는 전화(1588-9426)로 사전 접수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날짜별로 드영·무등현대·우제길·의재·국운 등 5개 미술관을 투어하고, 중심사상가지구

에서 체험, 공연관람 등을 진행한다.

이번 투어는 힐링, 연인, 가족, 교육·체험 등을 주제로 날짜별로 다른 테마로 진행된다. 투어코스나 시작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무등산과 어우러진 중심사상가지구가 지역민과 외국인들에게 이름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지기자

감금·협박·폭행한 조폭 영장

돈을 갚지 않으면 섬에 팔아 버린다고 후배를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조지폭력배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후배들을 폭행해 돈을 빼앗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조지폭력배 최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광 지역 조지폭력배인 최씨는 지난해 9월 후배 A씨를 맥주병으로 위협해 1천200만원을 빼앗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후배를 프라이팬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

지난 4월에는 200만원을 빌려준 다른 20대 후배 B씨에게 이자 포함 3천600만원을 갚으라며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하고,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감금하고 영광으로 납치하기도 했다.

당시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조수사를 통해 B씨를 구조하고, 도주한 최씨의 행적을 뒤쫓아 지난 15일 광주 서구에서 검거했다. /최환준기자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광주 남구가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16일 광주천 일원에서 황인숙 부구청장과 남구지역 자율방재단,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풍수해 대비 양수기·수중모터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법원 “광주 광산구 1금고 국민은행 선정 무효”

운영기관서 탈락한 농협이 제기한 소송서 농협 손 들어줘

지난해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차기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산구는 구금고 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흥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농협은행(이하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에 대해 농협이 이 사건에 유출됐으며, 금고 업무 관련 능력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심의 하루 전과 당일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회를 열어 11월1일부터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농협은 심의에서 탈락한 뒤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 절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금고 업무 관련 능력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심의 하루 전과 당일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공무상비밀누설)로 6급 공무원을 임진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 5명과 대출 편의를 받은 4급 공무원,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은행의 지정기탁금을 받은 구의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농협은 광산구를 상대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처분 판단 법원은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입찰 절차에 심의위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봤다.

또 광산구와 농협 사이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은행과 광산구 제1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광산구는 경찰 수사 결과 명단 유출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에 유출된 점 등을 볼 때 평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 3월 입장문을 내고 “금고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공고부터 제안서 제출, 심의까지 새로 진행하는 ‘재선정’ 절차를 거쳐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송지기자

재혼남과 친딸 살해 공모 엄마 결국 구속

첫번째 기각 뒤 2주만에...경찰 보강수사 ‘사체유기’ 혐의 적용

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주 만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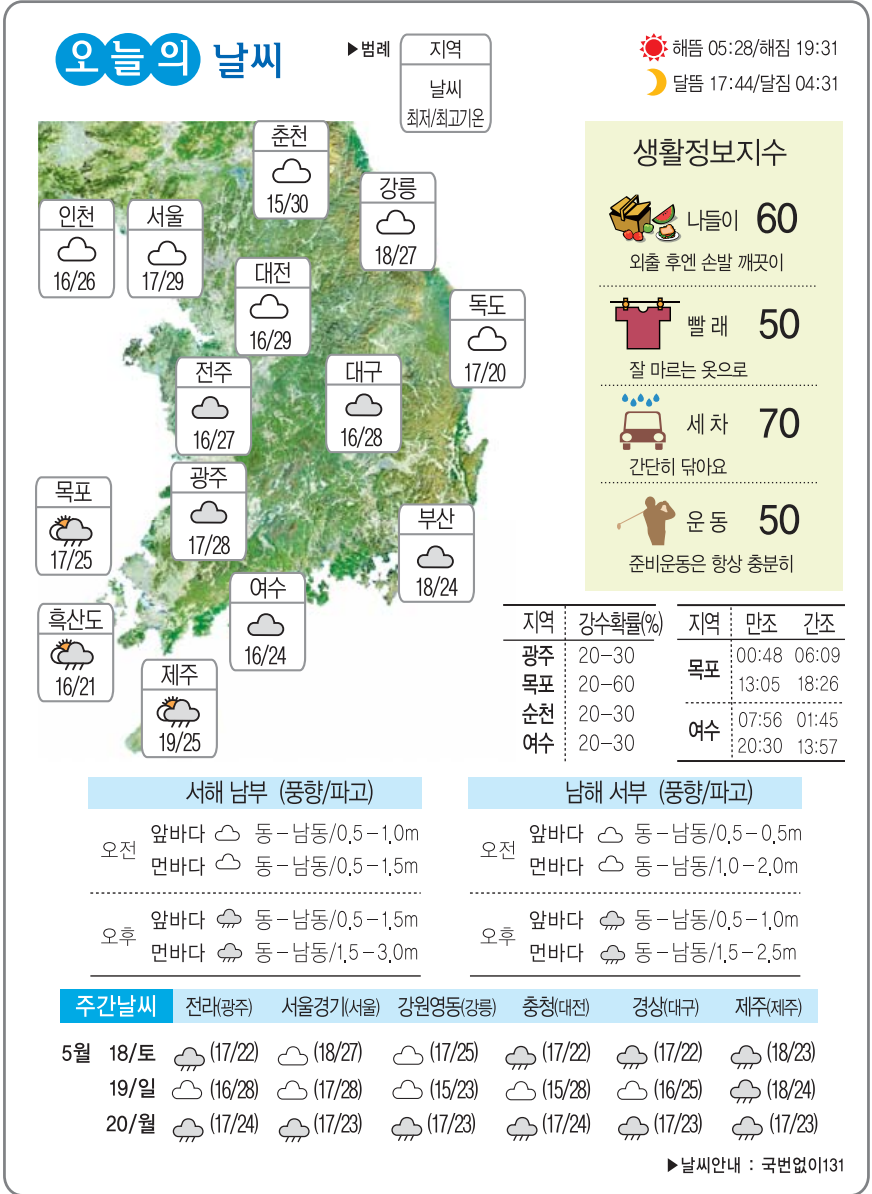
법원은 지난 2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당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유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오송지기자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

광주시 특수학교 전국 대비 2.8% 불과

시의회 시정질문서 열악한 교육환경 도마위에

광주지역 특수학교와 학급수, 보조인력인 특수교육 실무사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장애아동과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민주·남구3) 의원은 16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적장애, 청각·시각장애, 지체장애 아동과 학생을 위한 광주시 특수교육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부족한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한국도지주택공사와 학교 용지반영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양질의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특수학교 학급수와 학생수는 2017년 180학급 967명, 2018년 190학급 1천16명, 2019년 197학급 1천2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김다이지

제14회 들불상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비정규직 사회공론화 기여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올해 제14회 들불상 수상자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 법)을 이끌었던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지난해 12월 11일 입사 3개월도 안 돼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였다.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김용균 법’을 이끌어내어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2019년 시대정신이 청년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교장들, 안중근 독립혼 찾아 항일 연수

하얼빈 의거 110주년 6박7일 일정

광주 지역 학교장들이 최근 6박7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항일 연수대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광주 지역 학교장들이 최근 6박7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항일 연수대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광주 지역 학교장들이 최근 6박7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항일 연수대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아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위해 기차를 탔던 블라디보스토크, 단치동맹을 맺었던 크라스노고, 하얼빈역 의거 현장, 마지막 위승 감옥에서 순국한 대련지역을 핵심으로 다녀왔다.

동신고 유선 교장은 “평소 관심 있었던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잘 배울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 이상설, 최재형 선생의 삶을 새로이 알게 되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수원은 현장에 직접 갈 수 없는 교원들을 위해 이를 원격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종민기자